

病室編成과 看護單位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서울대학병원간호과장〉 이 송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각 看護單位(nursing unit)의 配置와 專門各科別 入院患者를 收容하고 있는 病室의 編成을 소개하고 看護를 中心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음 page의 그림은 入院室이 있는 病院本館 1층의 配置圖이다.

이 配置圖를 보면 東西兩側에 각각 4個棟의 Nursing Unit 가 있고 本館 前面 건물 내에 서쪽으로부터 中央診療施設인 마취회복실, 중앙수술실, 방사선과가 있으며 東側 끝에 中央検査室과 血液銀行이 있다.

또 西側에 있는 병동 옆에 前面으로부터 응급실, 중앙응급실, 리넨실, 병설약국, 清夫室, (운반차 대기실) 취사장, 세탁장이 있다.

이상과 같은 施設과 Nursing Unit 사이에는 看護員의 각종 機能 수행에 있어 빈번한 연락과 내왕이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 以上과 같은 配置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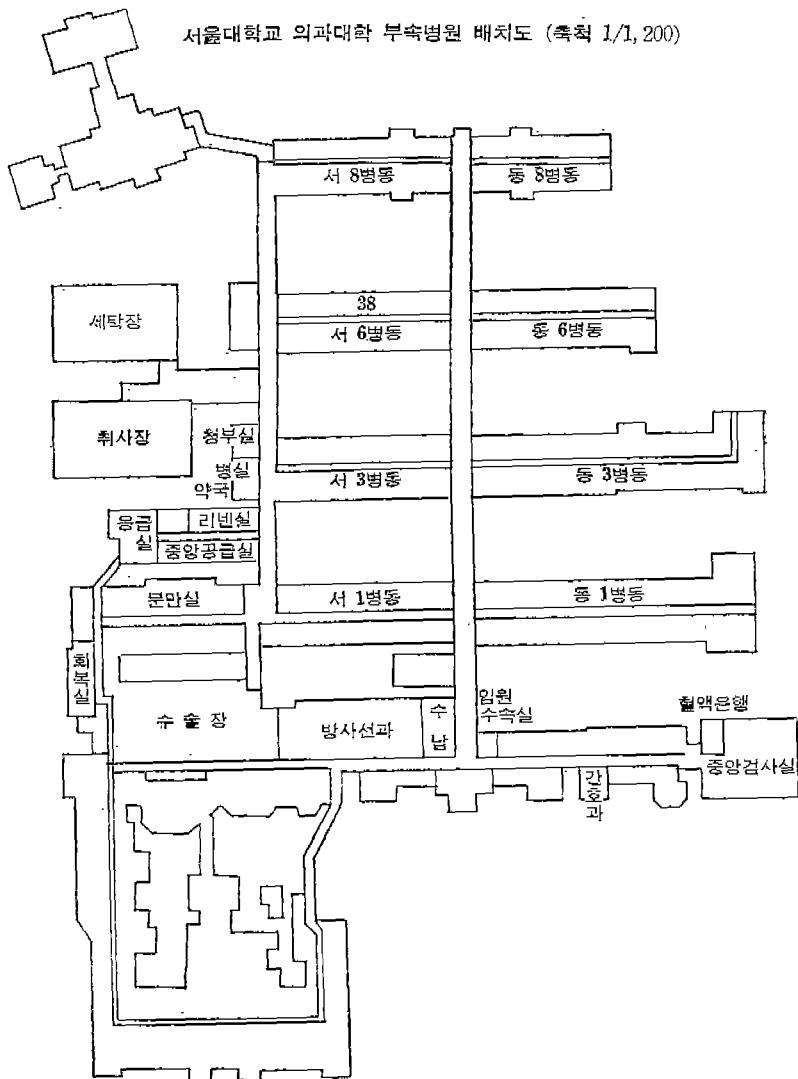
첫째, Nursing unit 와 診療施設 또는 그 부속시설과는相當히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中央検査室과 東病棟의 關係에서처럼 그來往에 상당한 時間이 소비되며 그만큼 機能의 수행이 늦어지게 된다.

둘째, 現在의 Nursing Unit 들은 東西病棟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Nursing Unit 와 관련이 있는 부서가 西側病棟 측면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東側에 위치한 Nursing Unit에서 서쪽 Nursing Unit 측면에 있는 부서와 내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쪽 Nursing Unit 의 복도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왕에 많은 시간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내왕으로 인한 소음으로 서쪽 Nursing Unit 는 높은 소란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면 청부실의 환자운반차, 식당의 식사운반차, 중앙응급실의 물품운반차 등의 소음을 말한다.

셋째, Nursing Unit 와 관련이 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배치도 (축척 1/1, 200)



는 부서중 유사한 기능이나 혹은 密接한 관련이 있는 機能을 하고 있는施設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세탁실과 리넨공급실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中央検査室과 X-ray 실과 또 血液銀行과 手術場 등은 아주 密接한 관계에 있으면서 멀리 떨

어져 있기 때문에 看護員들의 時間
만 많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患者
들도 많은 不便을 느끼게 된다.

다음에는 Nursing Unit에 있어
看護를 中心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 看護員들이 일하는 Nursing
Unit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빈번한
연락이 필요한 부서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며 同時に 모든
Unit과 거의 公平한 거리에 위치하
는 것이 좋겠다.

둘째, Nursing Unit과 밀접한 관
련이 있고 또 빈번한 내용이 필요한
부서는 다른 Nursing Unit를 통과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위치에 배치
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Nursing Unit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부서 중 서로 유사한 기
능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와 부서는 서로 隣接
된 위치에 있는 것이 좋겠다.

× × ×

다음은 우리 病院의 專門各科別
入院患者를 收容하고 있는 病室의
編成을 소개하겠다.

현재 우리 병원은 전문각과별 입
원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Nursing
Unit가 18개이며 그중 16개 Unit는
한가지의 전문과 환자를 主로 수용
하고 있는데 이 Unit는 眼耳鼻科, 皮
膚科 등 입원환자가 적은 전문과 환
자를 混合 收容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의 Unit, 恢復室은 마취 회복기

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과별로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Nursing Unit 중에서 정신과와 전
염성 질환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몇
개의 Unit를 제외하고는 병실의 bed
를 最大限으로 活用하기 위해 他科
患者일지라도 침대가 비어 있는 경
우에는 수용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
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바 입원환자의
수용으로 구성된 병실의 편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看護問題를 中心으
로 생각해 보면

첫째, 대부분의 Nursing Unit는
1개의 전문과 환자를 主로 수용하면서
同時に 거의 2個 이상의 전문과
환자를 混合 收容하고 있고

둘째, 대부분의 Nursing Unit에는
같은 科 환자일지라도 各種 經過中에
있는 환자가 혼합 수용되고 있다.

첫째의 경우, 즉 1개의 전문과 환
자를 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거의 2
개 이상의 전문과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看護機能 수행상

① 新入院 환자가 있을 때나 긴급
히 환자의 상태가 의사를 要할 때
해당파에 연락이 잘 안되어 治療와
看護가 늦어진다.

또 간호원은 이 연락하는 업무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된
다.

② 이미 입원한 환자라도 他科 병
동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

히 자기과 병동에 있는 환자보다도
回診이 늦어지며 따라서 治療나 看
護가 늦어지고 患者는 不平을 하게
된다.

③ 看護員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환자의 전문적 간호에 익숙해 있으
므로 他科환자의 看護에는 서툴게 된
다. 즉 전문적인 간호가 잘 안된다.

④ 看護員들은 자기 담당과 醫師
와의 人間關係에는 익숙해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반면 다른 科의
의사들과의 인간 관계에는 서툴므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따라서 治療
와 看護에 지장을 초래한다.

⑤ 施設이 아무래도 그 科 中心으
로 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다른 科 환
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施設의 不
足으로 治療와 看護에 支障이 있다.

또 特殊한 기계, 기구를 使用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 기구의 使用法에
익숙하지 못하여 診療의 協助에 지
장을 초래한다.

⑥ 他科 환자는 자기 해당과 병동
에 轉室을 원하게 되므로 병동을 움
기는 수속이 많아져서 간호원의 업
무량이 많아지고 터번등의 소비량
도 많아진다.

⑦ 2人 이상의 병실인 경우에는
과에 따라서 치료의 방침이 다르고
치료의 경과도 다르기 때문에 경우
에 따라서는 환자들이 자기가 받는
治療에 對해서 의아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內科的으로 治療를 받

아야 되는데 外科환자가 수술을 받
아 당시 일내에 퇴원할 경우 내파환
자는 내파의사를 不信任하고 외파로
轉科하려고 원하는 경우가 많다.

⑨ 日課의 수행에 있어서 routine
이 다르며 治療나 回診 等의 時間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看護員들은 일
을 질서있게 進行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 업무량도 많아진다.

以上과 같은 여러 問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수용은 1개의
Nursing Unit에는 1개의 전문과 환
자를 구별하여 수용해야 하며 Nurs
ing Unit의 전문과 배정에 있어서
각 Unit의 침대의 收容能力이나 병
실의 종류(독실, 2인실, 4인실 등)
등을 참작하여 배정하면 침대의 活
用도 効果的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
며 이러한 점은 병원 설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둘째의 경우 즉 대부분의 Nursing
Unit에는 같은 科환자일지라도 경
과가 다른 환자가 혼합 수용되고 있
는 경우의 문제점을 간호를 중심해
서 생각해 보면

① 경환자와 중환자가 같은 병실
에 수용되는 경우 중환자의 치료나
고통으로 인해 경환자가 받는 지장
이 크게 된다.

② 一般病동인 경우 重症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 치료를 위한 기
계, 기구 등의 시설이 충분해야 하
며 또 사용하는데도 익숙해야 할 뿐

만 아니라 特殊한 간호법에 속달된 간호요원이 양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우리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므로 종종 환자에게 중점적으로 간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환자의 수용은

첫째, Nursing Unit에 배정함에 있어서 경과별로 구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전환자를 모두 경과별로 Nursing Unit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각파 환자를 한 Unit에 혼합 수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으므로 内

外科와 같이 Nursing Unit를 3~4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과별로 区分하여 收容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 이와같은 경과별 환자 수용의 장점은 경과별로 훨으로 하는 기계 기구를 구입하여 해당 Unit를 위해 사용하며 경과별 간호에 속달된 간호원을 배치하므로서 기계, 기구의 경제적 사용, 적절히 훈련된 요원의 적당한 간호를 통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21회 서울시지부총회 개최◇

본 협회 서울시지부 제21회 정기 총회가 지난 3월 27일 YMCA 강당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300여명의 서울시 회원을 비롯한 관계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서울시 각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세계 보건일 표어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도 베풀어졌는데 그 당선작과 명단은 다음과 같다.

一등 김광미(청량국민학교5학년)

“건강한 몸과 마음 증진되는 세계평화”

二등 김석환(수송국민학교 5학년)

“에방하는 국민건강 발전하는 국가경제”

三등 고준석(광희 국민학교 5학년)

“보건 속에 전장 있고 전장 속에 전설 있다”

이어 1967년도 사업보고와 1968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회칙수정안 심의, 임원개선 기타 트의안건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2년간 지부사업을 이끌어 나갈 신임 임원들의 명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 : ~이성옥 (한일병원 간호원장)

부회장 : ~이성덕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장)

이사 : ~안귀분 이종희 홍영숙 하영수 방숙자 방수녀 전산초 김영숙 한윤복 김순자 김진희

감사 : ~김복음 최보배